

# 대주 “5년 내 30대 그룹 진입”

## 건설·조선·금융 ‘3각 체제’ 앞세워 광주·전남 대표기업 급부상

대주그룹(회장 허재호)이 건설·조선·금융부문 등의 ‘3각 체제’를 앞세워 ‘명실공히’ 광주·전남지역 대표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주그룹은 모태인 건설부문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유망사업인 조선부문의 대규모 투자 등 공격 경영을 통해 2000년 이후 급성장하는 등 명실상부한 재계 30위권 진입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 ‘피오레’ 아파트 4만5,000여 세대 공급

### ‘공격 경영’ 年 매출 10조원 시대 눈 앞

30일 대주그룹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지난 27일 목포 옥암지구와 순천 용당동에서 각각 832세대, 1천555세대의 ‘피오레’아파트 분양에 나서는데 등 올해 9천999세대의 아파트 공급을 눈앞에 뒀다.

실제 대주건설은 향후 5년내 4만5천여세대의 ‘피오레’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연 매출 1조5천억원의 시대를 열 계획이다.

대주그룹은 지난해 총 13개의 계열사가 1조6천585억원의 매출을 올린데서 재계 55위로 올라섰다. 매출액의 경우 2003년 1조920억원에서 2004년 1조3천478억원으로 급증해 2년째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대주그룹의 성장 원동력은 건설·조선·금융부문의 ‘3각 체제’로 요약된다. 그룹의 근간인 ‘3각 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일일 손익평가시스템 및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 등을 통해 그룹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특히 조선부문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으로 꼽힌다. 대주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최근 조선업계의 활황을 등에 업고 중·대형 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 매출 6조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건설을 모태로 한 대주그룹이 향후 5년내 재계 30위권 진입을 골자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최근 2년째 23%대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사진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8월31일 광주 수완지구 ‘피오레’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고공격 주택 공급을 위한 시설 및 설계에 대한 보완점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이와 함께 대주건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피오레’아파트 119세대를 국내와 현지에서 분양하는 한편 뉴질랜드 최고층 건물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주택건설업계의 ‘블루 오션(Blue Ocean)’ 개척을 주도하고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대주건설과 동아건설의 인수전에 적극 참여한데 이어 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인수·합병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주건설의 경영 다각화는 대주그룹을 오는 2011년 재계 30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한 ‘초석 다지기’로 풀이된다.

대주건설은 지난해 총 13개의 계열사가 1조6천585억원의 매출을 올린데서 재계 55위로 올라섰다. 매출액의 경우 2003년 1조920억원에서 2004년 1조3천478억원으로 급증해 2년째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로 보고 있다.

### 대한조선, 세계적 업체로

이를 위해 대한조선은 지난 2004년 이후 국내·외 매머드급 조선소 건설에 본격 뛰어드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여수조선소를 대체할 선박건조 시설을 해남 화원(170만평)과 해외에 잇따라 건립함으로써 세계적인 조선업체로 도약한다는 구상이

다. 또 국내 조선사업의 경우 경남 하동 등으로의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꾸준한 성장세도 그룹의 안정적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화재는 지난 2001년 대주그룹에 인수된 이후 5년 연속 흑자 달성과 500억원의 이익잉여금 적립 등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남겼다.

대한화재는 또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2008년까지 ‘매 회계연도 30% 매출신장’, ‘기업가치 100% 증

대’, ‘총자산 1조원 달성’ 등의 중기 경영비전을 발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예고했다.

대주그룹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들의 사업실적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매출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조선부문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향후 5년내 총 매출 10조 규모로 30대 그룹에 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기업 채용면접 ‘이색 질문’ 백태 애인이 친구와 바람 피면 당신은 누굴 택하겠는가?

“애인이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면 누굴 택하겠는가? 만약 또 그 반대라면?”(삼성전자), “부모님과 애인 둘 다 위급할 경우 어디로 갈 것인가?”(현대차), “버스에 앉아 있는데 임산부, 다리를 다친 학생, 할아버지, 짐이 많은 아주머니가 탔다면 누구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할 것인지, 또 그 이유는?”(한화석유화학)

인사취급(HR) 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t.com)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구직자들이 면접 후 모아놓은 면접시 실제 질문 5천여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이러한 유형의 이색질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인크루트가 소개한 질문에는 ‘배우자와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한명만 구할 수 있다. 누구를 구하겠는가?’(한국타이어그룹), ‘무인도에 동물을 데려간다면 어떤 동물? 그리고 그 이유는?’(한국문화진흥회), ‘무인도에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것 3가지를 말해보라’(푸르덴셜생명보험) 등도 있었다.

“애 지원자들은 검은색 정장만 입는가?”(삼성생명),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삼성SDI),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집 전체의 하루 판매량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량을 계산하시오’(효성), ‘애인이 없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애인이 없다고 생각하는가?’(한화석화) 등도 ‘황당함’ 질문으로 예시됐다.

/연합뉴스

## 한국, 세계 100대 조선소 14개 중 소형 조선소 육성 서둘러야

한국이 현대중공업과 같은 초대형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100대 조선소는 14개사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중 소형 조선소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해운·조선시황전문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9월 세계 100대 조선소 현황에서 일본은 28개사가 이름을 올려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27개사, 한국이 14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세계 10위 코요다조선을 비롯해 미쓰비시중공업(11위), IHK(12위), 유니버설선박(13위), 츠네이시조선(16위), 오시마선박(17위) 등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해 탄탄한 조선 경쟁력을 자랑했다.

반면 한국은 현대중공업(1위) 등 7개 업체가 10위권에 포진했지만 나머지는 성동조선(25위), SLS조선(26위), SPP조선(44위), INP중공업(74위), 21세기조선(83위), 대진조선(88위), 삼호통영조선(98위)으로 대부분 중하위권을 면치 못해 일본, 중국과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 産銀 직원 13%가 역대 연봉

지난해 국내 은행의 부장급 이하 일반직원 중 5% 가량은 역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산업은행 직원의 13% 가량이 역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9개 은행 직원 8만8천760명 중 역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6%인 4천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564명에 비해 3년간 무려 7.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전체 직원 중 13.3%인 278명이 역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입은행은 12.7%인 78명, 하나은행은 9.3%인 656명이 역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이어 신한은행 8.3% 436명, 조흥은행 7.6% 475명, 외환은행 7.1% 363명, 국민은행 5.0% 855명 등이었다.

/연합뉴스

## 토공, 택지사업에서 순익의 90% 남겼다

한국토지공사사는 지난 5년(2001~2005년)간 전체 순익의 90% 가까이 택지개발사업에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토공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작년까지 5년간 2조1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택지사업이 1조7천778억원을 남겨 전체 순익의 88.3%를 차지했으며 산업단지에서도 4천303억원(21.4%)의 이익을 냈다. 토공은 다만 기업구조조정용 매입 토지의 매각지연 손실 등에서 1천945억원의 손실을 봐 순익이 감소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택지 1조5천197억원, 산업단지 4조717억원, 기타 부문 2조1천697억원 순이다.

한편 토공은 정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확대방침에 따라 내달 택지를 공급하는 제주 삼화지구(291만평)부터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항목의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해외 투자’ 국내기업 52% ‘국내 투자 포기 경험있다’

### 상의 300개 기업 조사...국내 투자여건 불만

해외투자를 한 적이 있는 국내 기업의 절반이상이 열악한 여건 때문에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투자를 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해외 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투자로 대체했던 경험 있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52.3%를 차지했다.

해외로 투자지역을 대체한 이유로는 ‘노사여건’(54.1%)이 가장 많았고,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돌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나 불분명한 노사분규 노사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금융, 조세, 노사 등 전반적인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 58.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해외 투자여건은 70.8점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 공단임대료 등 요소비용 인상억제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조세, 노사, 입지 및 공장설립, 행정 등 5개 투자여건 만족도를 해외와

비교·평가한 결과 특히, 인건비, 노사분규 등 노사부문(국내 58.7점, 해외 73.5점)과 공단임대료, 토지규제 등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국내 57.3점, 해외 71.0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5개 투자여건별로 세부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문은 ‘담보위주 대출실행’(40.4%)과 ‘높은 대출금리’(27.8%)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사부문의 경우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2.9%)와 ‘낮은 노동생산성’(27.2%)이,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은 ‘과다한 물류비용’(34.0%)과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25.4%)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정부문은 ‘복잡한 행정절차’(32.1%)와 ‘정책일관성 부족’(25.7%) 등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 9월 산업생산 ‘깜짝 호조’

### 광주·전남 통계청 “조업일수 늘어나”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생산과 민간소비 등 실물지표가 일시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9월중 산업생산지수는 각각 179.3, 122.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9월보다 각각 41.5%, 7.2% 증가한 것으로 추석연휴가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0월로 바뀌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9월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일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는 산업생산지수가 전 달인 지난 8월보다 22.9% 증가하면서 지난 1997년 2월 22.5%를 기록

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9월중 산업생산은 일시적 효과가 크게 반영된 만큼 10월 지표가 나와야 실제 경기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경우도 지난달 산업생산지수가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각각 2.9%, 16.3% 증가하면서 ‘깜짝’ 호조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2월 20.6% 이후 가장 높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보다 28.1% 늘어난 것을 비롯, 자동차 53.2%, 기계장비 15.5%, 기타운송장비 35.2% 등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업일수를 감안한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이 전월과 비슷한 점에 비춰보면 경기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는 산업생산지수가 전 달인 지난 8월보다 22.9% 증가하면서 지난 1997년 2월 22.5%를 기록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민영 의료보험제도 개편 반발

### 보험업계, 중지 요구

민영 의료보험의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사장은 30일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민영 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 한다”면서 “30만 보험인을 대표해 규탄하며 민영 의료보험 탈락 정책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민영 의료보험이 법정 본

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기존 민영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6조4천억원(2004년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7월11일 대통령에게 ‘민영 의료보험 개입이 의료 이용량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상품 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 손해’라고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주)신영하이테크	생산부 직원채용(생산직 및 생산관리)-주/아 고대근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1	062-949-8800
신안그룹	[전남]기전빌 경리직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1	02-3467-1075
선광엔지니어링(주)	계측관리 및 보고서작성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1/02	062-232-5857
한국인포데이타(주) 전남본부	스카이라이프 광주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3	062-360-0503
(주)엘스기전	전기수배전반 설계업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03	062-956-2933
사카타코리아	영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3	062-971-6674
(주)삼라건설	관리(직) 신입 직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4	062-233-7733
(주)중원철강	판매 일출력 재고관리 및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04	062-374-6991
(주)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06	062-601-7203
동국전자(주)	품질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8	062-952-4492
동원건설(주)	건설/토목/공무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08	062-606-5553
(주)한진디엔비	총무및 무역사무원,생산직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10	062-953-4510
신진정밀(주)	생산관리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10	062-954-0951
대명하이텍(주)	부속cad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1	062-953-644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